

2006. 11. 1

APEC의 성 주류화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kyh55@kwdi.re.kr

1. APEC의 젠더 의제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아태지역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무역과 투자를 증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다. APEC에는 현재 21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며, GDP 규모는 전체의 60%에 다다를 정도로 APEC의 잠재적 영향력은 크다고 하겠다. 또한 APEC은 세계무역기구(WTO)나 다른 양자 간 경제협력체와 달리 의무조약 같은 것 없이 상호 합의와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APEC의 활동은 '세 개의 기둥' 이라고 불리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비즈니스 촉진, 경제와 기술 협력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에서 채택된 보고 목표(Bogor Goals), 즉, '산업화된 국가들은 2010년,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 내에서 자유무역 및 투자 체제를 이룩한다'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APEC의 핵심 조직으로는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Leaders' Meeting),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들 수 있는데, 그 외에도 포라(Fora)라고 불리는 다양한 실무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이 글의 초점인 여성전담관회의(GFPN: Gender Focal Point Network)는 APEC 내 다양한 포라 중 하나이다.

GFPN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우선 APEC안에서 젠더가 어떻게 의제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PEC의 초기에는 여성의제를 논하는 별도의 기구가 없었으나, 1996년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의 협력으로 여성지도자네트워크(WLN: Women Leaders Network)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정부, 기업, 학계, 민간단체에 종사하는 여성지도자들의 비공식적인 민간네트워크로서 GFPN에 대하여 기업자문위원회와 함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젠더 이슈를 일부 실무그룹에게만 관련된 문제가 아닌 APEC 전체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계기는 1998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1회 여성장관회의에서 마련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APEC의 경제발전과 협력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과학과 기술, 인적

자원개발을 하위주제로 다루고 APEC 활동에 젠더 이슈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고위관리회의는 1999년 “젠더 관점 통합을 위한 임시자문기구 (AGGI: Ad Hoc Advisory Group on Gender Integration)”¹⁾를 발족하고 “APEC 여성통합기본 계획(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Women in APEC)”을 작성했다. 아울러 2002년 SOM에서는 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GFPN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 APEC 여성통합기본계획과 GFPN의 역할

1999년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은 ‘APEC 내 주류의 과정과 활동에 여성통합을 성취 하도록 하는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다. 여성장관회의는 이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우선 젠더는 APEC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cross-cutting) 주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무역과 투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 협력 등과 관련한 APEC의 활동들은 상호 연관되고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여성은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며 여성의 무보수 노동은 경제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경제활동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권한을 증진하고 장애를 없애야 한다는 점 등을 천명하고 있다.

여성통합기본계획은 APEC 내 성 주류화를 위하여 성 분석(gender analysis), 성별 분리통계의 수집과 활용, APEC 내 여성참여의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면서,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APEC의 모든 정책과 프로젝트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보다 풍부한 자료에 기반을 두게 되고, 그에 따라 효과도 증진될 것으로 본다. 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현실을 파악해야 하며, 이는 성별 분리 통계를 필요로 한다. 또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 분석과 성별 분리통계, 여성의 참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성통합기본계획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성 분석을 위한 역량구축, 모든 단계의 의지, 모니터링과 우수사례 공유, 프로젝트 계획서 평가에 APEC 젠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을 기술적으로 자문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GFPN이다. 즉, GFPN은 APEC의 다양한 기구들이 젠더 이슈를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며, 또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프로젝트 활동에서 젠더 기준을 적용하는지 조사·보고하는 일,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원하고 보고하는 일, APEC에서 젠더 관점 통합을 촉진하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 등도 GFPN의 역할이다.

3. 2006년 APEC과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

올해는 APEC 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역동적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베트남에서 개최되고 있다. 구체적인 하위 주제는 부산 로드맵과 도하개발의제에 따른 무역과 투자

1) 이 기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환기 동안 APEC 여성통합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위임사항을 수행하였다.

증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와 기술협력 증진, 안전하고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 연계 증진 등이다. 11월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양한 회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제4차 GFPN 회의와 제11차 여성지도자네트워크회의도 개최되었다. 올해 여성지도자네트워크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여성참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와 여성 2006 포럼’ 권고문을 이행, 투자와 비즈니스와 신용 관련 법률/규제/실천에서 성차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무역관련 공무원들에게 성 분석 훈련을 실시, 무역정책 개발의 일부로 항상 성 분석을 실시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필리핀에 WLN 사무국 설치, WLN 권고문과 여성통합기본계획의 이행 모니터, 여성 기업 활동이 APEC 회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효과 등 관련 연구의제 개발, 2008년 여성장관회의의 개최 요구 등을 후속과제로 설정하였다.

4. 2006년 APEC 여성전담관회의(GFPN)의 성 분석 워크숍

지난 9월 제4차 GFPN 회의 직전에 APEC 관계자들을 위한 성 분석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3차 GFPN 회의에서 제안된 것이다. 제17차 장관회의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 APEC 관계자들이 무역자유화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정책과 프로젝트의 디자인, 시행, 모니터, 평가 등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안목을 가지도록 정기적으로 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이에 GFPN은 APEC 포라 및 회원국들이 여성통합기본계획을 이행하는 주요 수단인 성 분석을 위한 역량과 기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06년과 2007년 두해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정보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APEC 포라 관계자와 회원국의 여성전담관들, 정부와 민간부문 관계자들 4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이틀 동안 진행되었고, 주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성통합기본계획, 성 분석 개념과 도구를 이해하고 성 인지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디자인, 모니터와 평가를 위한 기법을 익히도록 구성되었다. 특별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훈련에서 실제 정상회의 선언문, APEC 프로젝트계획서의 젠더 기준 체크리스트 등 APEC 자료들이 활용돼 현실감이 높았다는 점이다. 워크숍 결과는 제4차 GFPN 회의에 보고되었다.

5. 향후 과제

APEC 안에서 젠더 이슈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APEC 포라는 여성통합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업무와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성 분석 워크숍과 같은 기회는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제4차 GFPN 회의에서는 기본계획 이행의 진전 상황을 논의하고 APEC 포라와 위원회, 실무그룹 등이 젠더 이슈와 여성참여 증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향후 APEC 내 성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GFPN이 APEC 포라의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관심 범위를 아우르면서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적절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